



San 14-67, Jangchung-dong 2-ga, Jung-gu, Seoul, Korea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 14-67 국립극장(100-857) 02)2280-4114, 2271-1741 E-mail: webmaster@ntok.go.kr

원작 : 몰리에르 예술감독 : 이윤택 연출 : 에릭 비니에 번역·드라마트루그 : 최준호 공동 번역 및 조연출 : 한덕화 조연출 및 안무 : 프레데릭 롱바르 조안무 : 윤성철 편곡 : 박위철, 조원행 무대디자인 : 에릭 비니에, 윤시중 의상디자인 : 송은주 조명디자인 : 조엘 우르베 소품디자인 : 박은혜 무대 바닥 디자인 : 은지 페나르 김 통역 및 조연출 : 정 미 기록 및 사진 : 오델로 빌가르

기술팀장 : 김인철 예술팀장 : 구재하 무대감독 : 목وح찬 장치 : 이원영, 신종현, 박병우 작화 : 이성현, 이명교 소품 : 정복모, 채수형 의상 : 김경수 장신구 : 엄인섭 조명 : 고상준, 이계준, 주영석 음악 : 김형준 영상 : 범기창, 박자웅 기계 : 김영훈
협력업체 : 종합무대기술연구소 현장감독(김영수), 장치(정용수, 김수호, 심우용, 김현창, 추한진, 이성덕, 김재율, 류호철, 백창현, 배대성, 박일천), 작화(이현숙), 소품(정아람, 김경미, 박경애), 의상(임월순, 엄혜선), 장신구(김홍한), 조명(이광성, 조성오, 김남식, 신일수, 원재성, 안현정, 강남규), 음악(홍윤석, 이형석, 이용석, 김선진), 기계(이호준)

기획 : 권해미, 류상록 마케팅 : 정세원 홍보 : 한정희 사진 : 김천복 객역지원 : 김영수, 박봉선, 최선경, 윤미현

www.ntok.go.kr

국립극장 제 202회 정기공연 '세계명작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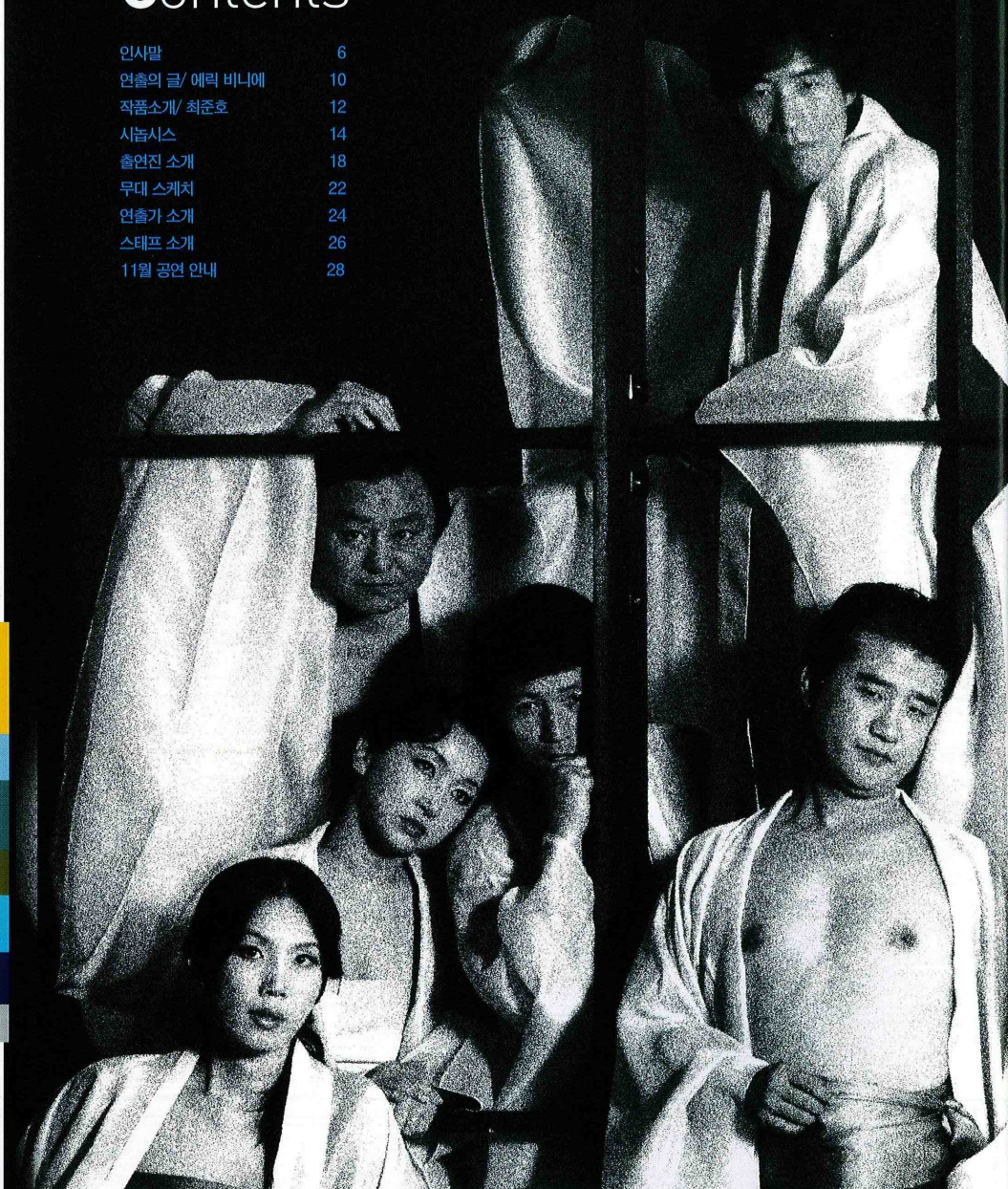


Le Bourgeois
Gentilhomme

귀족놀이

Contents

인사말	6
연출의 글/ 에릭 비니에	10
작품소개/ 최준호	12
시놉시스	14
출연진 소개	18
무대 스케치	22
연출가 소개	24
스태프 소개	26
11월 공연 안내	28



귀족놀이

“아름다운 후작부인
그대 아름다운 두눈에 **사랑**으로 죽을 것만 같소.”

*"Belle marquise, beaux yeux
me font mourir d'am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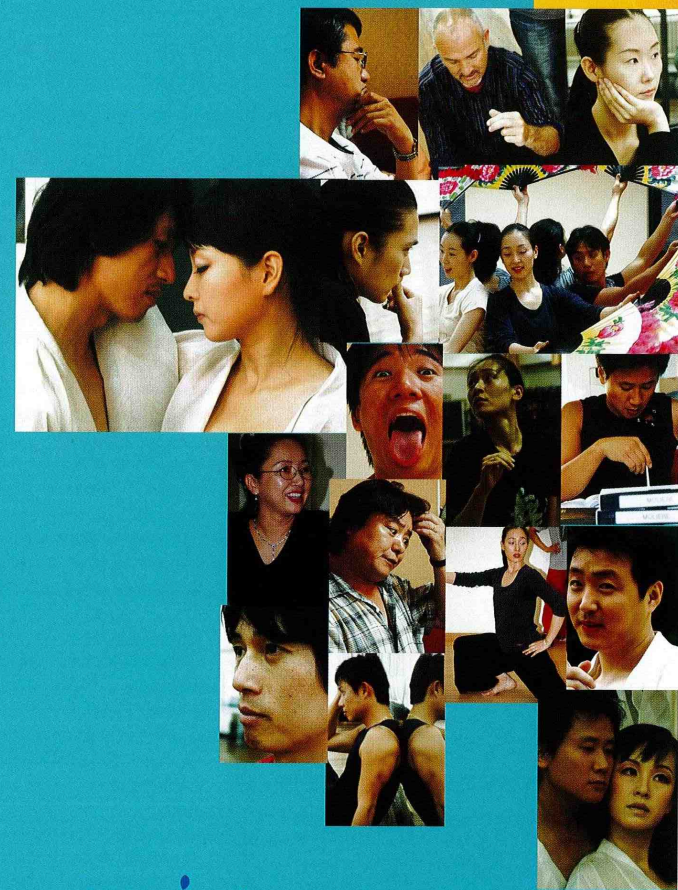
2004.9.11(Sat)-24(Fri)

장말 7:30pm / 토요일 4:00pm, 7:30pm / 일요일 4:00pm (단, 13일(월) 공연없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작 | 몰리에르 • 예술감독 | 이윤택 • 연출 | 에릭 비니에 • 번역 | 드라마투르그 | 최준호
- 출연 |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오페라단 • www.nlak.go.kr
- 주최 | 국립극장, 프랑스 로리앙 국립연극센터, 주한프랑스대사관 • 주관 | (주)도티콤 커뮤니케이션즈, (재)국립극장 발전기금
- 후원: 로도복권시스템사업자, KLS, AFAA, 프랑스외무부예술진흥협회, KOBACO, POSCO, SAMSUNG, 현대건설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행복이 있는 세상



*Le Bourgeois
Gentilhomme*

예술창작은 세계인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

La création artistique est un langage universel.

국립극단의 대표적인 기획공연 시리즈인 '세계명작무대'의 올해 작품은 흔히 프랑스관 '양반전'이라고도 오인되곤 하는 몰리에르의 <귀족놀이>(Le Bourgeois Gentilhomme))입니다.

시간의 검증 받은 명작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본성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려 동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호응을 얻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국립극단의 <귀족놀이>는 그런 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전을 현지의 연출가와 한국의 배우가 만나 한국적으로 풀어 나가는 상황이 아주 재미있을 것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춤과 우리 국악이 바탕이 된 공연이라는 점입니다. <귀족놀이>는 단순하게 한국의 연극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작품을 프랑스 예술시장에 처음으로 펼쳐 놓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창작은 세계인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특히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을 만드는 일은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인이 공감하는 세계인의 언어를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술창조자로서 - 연출자, 배우, 안무자, 스테이지 디자이너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교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예술을 하는 진정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최초 프로젝트에서부터 노력해 주신 프랑스 대사관 여러분과 박성규 전 단장님, 이윤택 예술감독님, 그리고 프랑스 연출자 에릭 비니에님과 조연출 프레데릭 롱바르님, 조명디자인 조엘 우르베님,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님 최준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국립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환경에서 열심히 연수에 임하셨던 배우들, 그리고 우리 극장의 스태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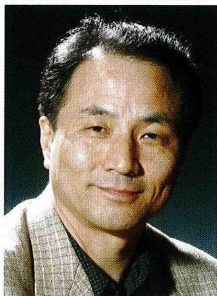
국립극장에서 제작하는 여러 장르의 공연들이 전 세계의 공연예술제와 공연장의 시즌 개막작으로 올려지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Cette année <<le bourgeois gentilhomme>> de Molière, qui est souvent comparé à tort à la pièce coréenne <<Yangbanjeon>>, a été choisi pour la série representative de la Troupe Nationale de théâtre <<la scène des chefs-d'œuvre du monde>>. La raison pour laquelle les chefs-œuvre du passé sont toujours aimés des gens d'aujourd'hui est qu'ils touchent à la nature humaine. Ils sont universels. C'est dans ce sens que la rencontre d'un metteur en scène français et des acteurs coréens autour du bourgeois gentilhomme promet d'être passionnant, d'autant plus que ce projet intègre les autres arts vivants coréens à savoir la musique et la danse. Ce spectacle revêt une grande importance car c'est la première tentative pour le Théâtre National de présenter sur la scène artistique française une œuvre totale qui intègre la culture coréenne, ce qui est bien plus que de présenter un spectacle coréen en France.

La création artistique, et en particulier l'art du théâtre, travaille à l'invention d'un langage universel que les gens du monde entier peuvent partager au-delà des limites linguistiques. En tant que créateur artistique - que ce soit metteur en scène, acteur, chorégraphe ou participant -, c'est une chance de partager une expérience artistique entre gens de différentes cultures et langues. Je suis persuadé que les participants pourront apprendre à se comprendre dans le respect et de la différence de chacun, ce qui pourrait être la vraie raison dans l'avenir de poursuivre notre travail artistique.

Je tiens à remercier les responsables de l'Ambassade de France qui n'ont pas ménagé d'efforts depuis le début de ce projet ainsi que M. PARK, Sang-Kyu, ex-directeur de la Troupe Nationale de théâtre, M. LEE, Youn-Taek, directeur artistique, M. Eric VIGNER, metteur en scène et Directeur du CDDB-Théâtre de Lorient, Mme Frédérique LOMBART, sa collaboratrice artistique, M. Joël HOURBEIGT, éclairagiste et M. CHOE, Jun-Ho, directeur artistique du Seoul Art Center. Je remercie également les acteurs et le personnel qui ont fait de leur mieux pour bien travailler pendant tout l'été dans le théâtre en rénovation.

Moi, en tant que Directeur Général du Théâtre National, j'espère qu'un jour les spectacles de divers genres de notre théâtre marqueront l'ouverture des festivals ou de la saison partout dans le monde.



김명곤

국립극장장 김명곤
Directeur Général KIM, Myung-Gon

시험대에 오르는 국립극단의 해외연극 수용 능력

La capacité d'intégrer les pièces étrangères
de la Troupe Nationale de théâtre est mise à l'épreuve.

큰레제로 된 연극의 고전을 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명작 공연이란 것이 원래 적잖은 제작비가 드는 데다 배우와 스태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작극 우선 지원제도가 낡은 역기능이기도 할 것이다. 연극은 가장 민족적이면서도 세계적 공유성을 지니는 문화 장르이다. 그래서 세계적 고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한국극의 연극 독자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 점에서 한국연극은 분명 자기 패색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올해에는 그레고르 체호프 서거 백주기를 맞아 체호프 연극들이 다양하게 공연되어서 좋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나 체호프에 비해 실러나 몰리에르의 연극을 접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1972년 몰리에르 연극들이 극단 자유, 산울림, 드라마센터, 극단 광장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연된 이후 제대로 된 몰리에르 연극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이제 국립극단 '세계명작무대' 기획의 일환으로 프랑스 연출가 연출하는 몰리에르의 연극이 국립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 공연을 거쳐 프랑스 무대에 진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 프랑스 연출가와 스태프가 한국의 배우와 스태프를 만나는 이번 기획은 오늘의 국립극단 연극이 얼마만큼 해외 연극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시험받게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시험무대는 국립극단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고비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훈련받은 배우들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연출가 비니에의 창의적인 해석과 과감한 실험정신을 기대해 볼 것 같다.

이번 공연을 가능하게 해 준 사람들은 사실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본인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국립극단 단장직을 수행해 오다 근래 상명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긴 박성규 전 단장, 김철리 전 예술감독, 지금까지 드라마트루기 역을 맡아 주고 있는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그리고 권혜미 기획위원이다. 그들의 기획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공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음을 밝히고,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De nos jours il est de plus en plus difficile de voir de bonnes pièces classiques étrangères. Ce phénomène s'explique en partie par les coûts élevés et la compétence spécialisée requise des acteurs et du personnel en la matière ainsi que par la politique culturelle qui privilégie de soutenir en premier lieu la création coreenne. Le théâtre est un genre national et universel à la fois. C'est pourquoi certains considèrent que l'interprétation des œuvres classiques du monde sert de mesure à l'originalité et à l'universalité du théâtre d'un pays. De ce point de vue, le théâtre coréen a des limites. Heureusement, cette année plusieurs pièces de Tchekhov ont été présentées à l'occasion du centenaire de sa mort. Cependant, en comparaison avec les œuvres de Shakespeare ou de Tchekhov, il est relativement rare de voir les œuvres de Schiller ou de Molière. Depuis 1972, l'année où plusieurs théâtres tels que les théâtres Jayu, Sanulim, Gwangjang et Drama center ont proposé plusieurs de ses pièces, Molière était relativement absent de la scène coréenne.

《Le bourgeois gentilhomme》 est mis en scène par un metteur en scène français avec la troupe du Théâtre National de Corée dans le cadre de 《la scène des chefs-d'œuvre du monde》. Ce qui est intéressant, c'est qu'après les représentations à Séoul, ce spectacle sera présenté également en France. Pour la Troupe Nationale de Corée, cette rencontre entre un metteur en scène français et son équipe artistique avec les acteurs et les artistes coréens est sans conteste une expérience qui renvoie à la capacité d'intégrer le répertoire étranger, ce qui sera une aventure sur le plan national et international. Bien que la durée des répétitions soit courte, il semble que les acteurs engagés sur ce spectacle se portent bien et nous attendons avec impatience la lecture novatrice de M. Eric VIGNER.

Je remercie de tout mon cœur toutes les personnes qui ont travaillé à la création de ce spectacle. Il a été possible grâce à M. PARK, Sang-Kyu, ex-directeur de la Troupe Nationale de théâtre et professeur de l'Université Sangmyung, M. KIM, Cheol-Li, ex-directeur artistique de la troupe, M. CHOE, Jun-Ho, dramaturge de ce spectacle et professeur de l' Ecole du Théâtre de l'Université Nationale d'Arts et Mme KWON, Hye-Mi, administratrice.



이윤택

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윤택
Directeur Artistique LEE, Youn-Taek

몰리에르적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작품 La Magie de l'univers de Molière

몰리에르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풍자극 《귀족놀이》(원제 : Le Bourgeois Gentilhomme) 공연이 프랑스 로리앙 극장과 국립극단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2002년 4월 국립극단의 초청을 받은 연출가 에릭 비니에는 세계명작무대에 올릴 작품으로 프랑스의 고전 작품을 연출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였고, 국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오페라리단, 국립무용단의 단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프랑스 연출가와 함께 프랑스 극예술의 대표작 《귀족놀이》의 새로운 버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한국 예술인들과 한국의 전통 악기로 들려주는 릴리의 음악으로 더욱 빛나는 에릭 비니에의 연출은 몰리에르적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귀족놀이》는 서울 공연을 끝낸 후 10월 11일부터는 금번 공연 기획의 발단이 된 도시 프랑스 로리앙에서 공연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귀족놀이》의 대성공을 기원하며 오늘의 공연이 있기까지 기여해 주신 모든 예술가 여러분과 국립극단, 로리앙 극장 그리고 AFAA측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L'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souhaite la bienvenue à la plus célèbre des pièces de Molière, "Le Bourgeois Gentilhomme", réalisé en coopération entre le Théâtre de Lorient et le Théâtre National à Séoul.

En avril 2002, le Théâtre National avait invité Eric Vigner, metteur en scène, et lui avait proposé d'inscrire au répertoire l'oeuvre d'un auteur classique français. Pour la première fois, tous les acteurs du Théâtre National, les musiciens de l'Orchestre National, les danseurs et des chanteurs de l'Opéra National étaient alors réunis autour du projet artistique d'un metteur en scène français pour créer une nouvelle version du "Le Bourgeois".

Ainsi la brillante mise en scène d'Eric Vigner nous entraîne aujourd'hui dans la magie de l'univers de Molière, servie par le formidable talent des artistes coréens et la musique de Lully jouée sur des instruments anciens de Corée.

Après Séoul, les artistes coréens se produiront à partir du 11 octobre à Lorient, ville dont l'imaginaire, lié à son nom et son histoire a fait naître le projet.

En leur souhaitant un véritable triomphe, je voudrais remercier tous les artistes pour leur splendide prestation ainsi que notre partenaire coréen, le Théâtre National de Corée, et nos partenaires français, le Théâtre de Lorient, l'AFFA pour leur contribution à ce superbe projet.



주한 프랑스 대사 프랑소와 데스쿠엠티
Ambassadeur de France en Corée François DESCOUEYTE

문화와 복지가 함께 만드는 자리가 되길...

최근 사회동향을 보면 문화가 사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이전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복권도, 로또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대중 속에서 건전한 레저문화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 복권의 시스템 사업자인 (주)KLS의 전액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로또공익재단은, 양(量)과 수치(數値)에 치중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여러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로또공익재단에서는 2003년 말 일반인 및 장애인들의 자활의식 고취를 위한 자활연극 전국순회공연을 지원하였으며, 올 2004년 초에는 사회복지 시설로부터 400여 명을 초청하여 뮤지컬 무료관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복지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즈음에 대중 속으로 더 깊이 다가서려고 노력해 온 우리나라 순수예술의 산실인 국립극장과, 문화지원사업과 복지사업을 접목시키려 노력해 온 로또 공익재단이 2004년 한 해 동안 청소년과 장애인들을 위해 《청소년과 장애우를 위한 공연문화 나누기 캠페인》을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립극장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지원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문화와 복지가 함께 만나 대중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하나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관심과 지원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더더욱 필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통한 수많은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캠페인은 그들에게 더없이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순수예술이든 순수과학이든 예술과 학문의 근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립극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매세나 정신에 따라 로또공익재단은 순수예술공연을 비롯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문화지원사업의 선두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을 준비한 모든 구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성심성의껏 노력했습니다.

기울의 문턱에서 로또공익재단과 국립극장에서 치러놓은 화려한 문화잔치에 오셔서 마음껏 보고 많은 것 얻어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공익재단 이사장 홍 두 표
Directeur Artistique LEE, Yoon-Taek

로리앙에서 오리엔트로

1666년 루이 14세는 브르타뉴 지방 남부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그 도시를 '로리앙(L' Orient, 동양이라는 뜻-역주)'이라 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퍼스트로피가 생략되면서 로리앙은 'Lorient' 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1669년 루이 14세는 베르사이유 궁에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한 대사를 성대히 영접했는데, 사록에 의하면 이 대사는 사실 일개 정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태양왕 루이 14세는 모욕을 씻기 위해서 터키 인들에 대한 조롱을 담은 작품 제작을 명하며 몰리에르에게 대본을, 궁정 음악가 릴리에게 작곡을 명했습니다. 이리하여 1670년 《Le Bourgeois Gentilhomme》(서민귀족)라는 코메디 발레가 탄생했고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2002년 말 한국 국립극장 측으로부터 국립극단과 함께 작업할 것을 제안 받았고, 프랑스 고전 작가의 작품을 추천해 줄 것을 함께 요청받았습니다. 그 때 저는 일명 '몰리에르의 집'으로 불리는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카트린느 사미, 카트린느 이에젤 주연으로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사바나 베이 Savannah Bay》작업을 막 끝낸 직후였습니다. 《사바나 베이》는 동남아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사바나켓(Savannahket)'은 현재 라오스의 지명으로, 뒤라스가 유년 시절을 보내며 중국 남자와의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한 곳입니다. 작품을 읽는 동안 우리는 그곳의 풍경을 그려 보며 그 속을 거닐게 됩니다. 어쩌면 17세기 말 '동방의 태양(Soleil d'Orient, 쓸레이유 도리앙)' 호에 승선해 로리앙의 무역향을 떠난 브르타뉴의 선원이 중국 연안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국립극장은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명망 높은 단체로 외국 연출자가 연출하는 작품에 이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귀족 놀이》는 '타자(他者)'와 '미래'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왕의 눈에는 터키 정원사와 같은 중산 계층(Bourgeois)이 하찮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약 백년 후 이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몰리에르의 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역사에 대한 그의 관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아직 젊고 부유한 유부남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에릭 비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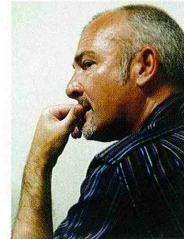


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세계-예술, 음악, 무용, 시, 언어, 의상, 무술, 웃음을 선사하는 철학 등의 세계-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르맹은 교양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으로 빠져들어버립니다. 터키 의식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그만의 세계 안으로 실어가 버리고, 그는 아내에게 "당신도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쥐버리겠다"는 마지막 대사를 남깁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유서 깊으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문화를 접하고 주로 서민층의 음악과 무용, 노래들과 일부 양반 계층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릴리의 음악은 직접 한 번 들어 보셔야 합니다. 작품의 준비를 위한 체류 기간 중에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지하철이 출발하고 문이 닫힐 때 차내 방송으로 음악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터키 의식의 장을 여는 음악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이번 공연이 프랑스, 그 이름과 역사로서 본 프로젝트 《로리앙(Lorient)에서 로리앙(L' Orient)으로》를 탄생하게 만든 '로리앙'으로 황하게 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 아닐는지요.

De Lorient à l'Orient



ÉRIC VIGNER

En 1666, le roi Louis XIV implante "La Compagnie des Indes" en Bretagne sud. La ville est baptisée l'Orient.

Puis avec le temps l'Orient perdra son apostrophe et s'écrira Lorient. En 1669, un ambassadeur de l'Empire Ottoman est reçu.

en grande pompe à Versailles par le roi Louis XIV.

L'histoire dit que cet ambassadeur s'avérait être un jardinier. Pour laver cette injure, Louis XIV, roi Soleil, commanda à Molière pour le livret et à Lully pour la musique un divertissement pour ridiculiser les Turcs. En 1670 eut lieu la première représentation du Bourgeois Gentilhomme et la Comédie-Ballet obtint un beau succès.

Fin 2002, le Théâtre National de Corée me propose de venir travailler avec la troupe et d'inscrire au répertoire une œuvre d'un auteur classique français. Nous venons de créer SAVANNAH BAY de MARGUERITE DURAS avec Catherine Samie et Catherine Hiegel à la Comédie-Française qui est aussi 《la Maison de Molière》. L'histoire de SAVANNAH BAY se passe en Asie du Sud-Est et Savannahket est aujourd'hui une province.

du Laos. C'est dans cette région que Marguerite Duras a passé son enfance et vécu la passion pour l'ami chinois. On découvre des paysages dans les livres puis l'on se met en marche pour les arpenter. Il est probable qu'à la fin du XVIIIème siècle un marin breton, embarqué à bord du 《Soleil d'Orient》, soit parti du port de commerce de L'Orient pour accoster en Corée après avoir longé le littoral chinois.

Le Théâtre National de Corée est une institution prestigieuse.

qui abrite dans ses murs les acteurs du Théâtre National mais aussi les musiciens de l'Orchestre National, les danseurs du Ballet National, et les chanteurs de l'Opéra

National. Jamais encore ils n'avait tous été réuni autour d'un projet artistique par un maître d'œuvre étranger. Dans LE BOURGEOIS GENTILHOMME,

il est question de l'Autre et aussi de l'Avenir. Le bourgeois comme le jardinier turc est ridicule aux yeux du roi mais, un siècle plus tard, le bourgeois sera l'artisan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Les œuvres de Molière ne sont pas innocentes et sous la Comédie on peut lire beaucoup au regard de l'histo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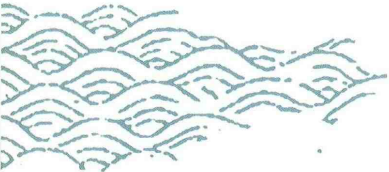
LE BOURGEOIS GENTILHOMME c'est aussi l'histoire d'un homme jeune encore, marié, riche, et qui par amour pour une autre femme que la sienne va découvrir un monde qu'il ne connaissait pas, celui de l'art, de la musique, de la danse, de la poésie, du langage, du costume, du maniement des armes et de la philosophie pour rire. Monsieur Jourdain est un homme sans culture qui a les moyens par amour de construire un monde dans lequel il s'absorbe. La cérémonie turque est la tornade illusoire qui l'emportera.

《Et ma femme je la donne à qui la voudra》 sera sa dernière réplique avant le Ballet des Nations. Quand je suis arrivé à Séoul, j'étais dans l'émerveillement de découvrir la musique, la danse et le chant d'une culture très ancienne et vive que je ne connaissais pas. Populaire souvent, quelquefois aristocratique. Il faut entendre la musique de LULLY jouée sur instruments anciens coréens. Au cours de ce séjour préparatoire, je me souviens avoir pris le métro, la mélodie qui signifiait.

la fermeture des portes était celle de l'ouverture de la cérémonie turque du Bourgeois Gentilhomme. Un hasard, pas si sûr. Un signe, probablement. La courtoisie voulait que ce travail réalisé en Corée du Sud revienne en France et en particulier.

à Lorient, ville dont l'imaginaire lié à son nom et à son histoire avait fait naître ce projet. De Lorient à l'Orient.

몰리에르의 <서민귀족>으로 창작한 <귀족놀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최준호

몰리에르(Molière)의 대본과 뫼리(Lully)의 음악으로 된 <서민귀족 Le Bourgeois gentilhomme>을 기초로 하여 새로 창작한 <귀족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작품을 완전한 형태로, 총체적인 공연으로 만든 작품이다.

작가가 코메디 발레(Comédie ballet)로 명명했지만, 그간 대사 중심의 연극으로 간간히 대학무대에서 올려졌을 뿐, 대본과 악보의 비중이 동일한 이 작품은 그 실체조차 소개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연극으로 상연되는 일이 잦은 이유는 바로크 음악과 무용을 소화해내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극단의 배우, 국립무용단의 무용수,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악사, 국립오페라단의 가수들이 몰리에르와 뫼리의 작품을 새롭게 무대 창작하였다.

<귀족놀이>는 연극에 대한 연극이다. 3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늙은 부르주아 주르맹의 우스꽝스런 귀족수업 과정을 통해 귀족과 부르주아 계층을 풍자하여 연출, 공연되었던 <서민귀족>은, 새로운 가치를 원작에서 찾아내어 2004년 대한민국에서 거듭나게 된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두 계층을 17세기 식으로 풍자하는 일은 원작의 이미지일 뿐, 17세기에 18세기를 바라보았고, 인간 사회의 항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고 있는 작가 몰리에르의 이 작품에서 우리는 작품 아래 깔려 있는 것을 부각시켰다. 몰리에르가 쓰고, 연기한 주르맹에게서 그 자신과, 몰리에르 극단의 당시의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당시 실제로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었던 몰리에르가 이 작품에서 쓴 대사 중 "아름다운 후작부인, 그대 아름다운 두 눈에, 사랑으로 죽을 것 같소"가 그것이다. 계층과 시대에 대한 풍자는 건어 내거나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 주르맹이 어느 날 후작부인과 사랑에 빠져,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고, 배우며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높고 명청한 주르맹이 아니라 당시 몰리에르처럼 젊고 돈 많은 주르맹이 문화, 예술을 가르칠 선생들을 불러 그가 원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발견해가는 - 몰리에르가 즉흥 연출을 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사건들이 펼쳐진다.

현실의 물질적 추구에 몰두하던 그에게 꿈-열정적 사랑-이 생겼고, 그 사랑은 이성이나 현실을 넘어설 정도로 벽차기에, 그 꿈의 실현 과정 또한 환상적이고, 아무 계산이 없이 순진하다. 이것이 멜로드라마적, 심리적 연애와 구별되는 점이자, <귀족놀이>에서 펼쳐지는 코믹 효과 및 극적 동인(動因)이 된다. 명청한 주르맹과 열빠진 선생들의 슬랩스틱 코메디가 아니라, 과도한 열정과 사랑에 어울리는 예(禮)와藝(藝)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진지함이 웃음을 유발하게 한 것이다. 또 그의 주문에 따라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다른 인물들에게서 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노력과 그들의 속성-주르맹의 고용자로서-이 정상적인 모습과 다르기에 웃음이 나온다. 결국 모든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목격하는 바를 지나칠 정도로 열정



현실의 물질적 추구에 몰두하던 그에게 꿈-열정적 사랑-이 생겼고, 그 사랑은 이성이나 현실을 넘어설 정도로 벽차기에, 그 꿈의 실현 과정 또한 환상적이고, 아무 계산이 없이 순진하다. 이것이 멜로드라마적, 심리적 연애와 구별되는 점이자, <귀족놀이>에서 펼쳐지는 코믹 효과 및 극적 동인(動因)이 된다.



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를 위하여 후작부인을 데리고 오는 도랑뜨와 터키 의식을 착안하여 진행하는 꼬비엘은 마치 주르맹이 고용한 연출가처럼 그가 원하던 상황을 제공해준다. 관객은 사랑의 환상에 빠진 주르맹의 모습을 보며 웃지만 순진무구하기까지 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불 공동 창작은, 완전히 새로운 공연을 완성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무리하게 또 하나의 '양반전'을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지도, 서양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지도 않고, 원작을 토대로 우리가 참여했을 때에야 창조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했다. 하지만 철저히, 대사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의 근거를 찾았다. 그렇게 해서 10월에 오르게 될 프랑스 국립 로리앙 극장 공연에서도 그들이 우리 관객들과 유사한 관객 경험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였다. 연극에 대한 연극으로 현실과 고정된 이미지를 버리고 연극 안에서 환상이 주는 재미와 그것을 만들어가는 흥미로운 과정에 집

중하게 하였다. 주르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연극 속의 인물이며, 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은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놀이에 가까운 것으로 정리하였다. 몰리에르가 제공한 주르맹의 귀족 놀이를 우리말과 우리의 몸짓을 이용하여 놓고, 바로크 음악의 자연에 가까운 순수한 소리는 우리의 악기로 새롭게 연주되게 된 것이다. 배우들은 미리 정리된 성격을 가지고 연기하기 보다는 상황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듯, 동물에 대한 상상력을 토대로 등장인물을 육화시켰다. 극 초반에 털 뿔한 새와 같은 주르맹은 예술을 만나며, 사랑을 기다리며 오색창연한 공작새를 꿈꾸지만 그의 소리와 움직임은 공작새가 그렇듯 안쓰럽기까지 하고, 결국 사랑을 만나고서는 무대 바닥에 그려진 하얀 공작새와 같이 모든 장식을 버린다. 이동 가능한 7개의 큰 세로 판으로 공간이 변화·창조되고, 공연은 검은 통 속에 들어 있어서 즉흥성과 환상이 느껴질 수 있게 준비되었다. 배우들처럼 관객들도 몰리에르와 희극에 대한 편견과 이 작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대와 마주한다면 매우 새롭고도 즐거운 관객을 할 것이다.

Synopsis



집 고 부유하지만 문화적 품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벼락 부자인 평민 주르맹.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후작부인)를 남몰래 사모하게 된 주르맹은 후작부인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귀족세계를 꿈꾸게 되고, 귀족의 신분을 나타내 줄 외모과 소양을 갖추려고 자 검술(劍術)·철학·음악·춤 선생을 고용하여 귀족풍을 몸에 익히려 한다.

교양 있는 줄로만 알았던 선생들은 자기 분야가 최고라며 교양 없이 싸움질을 하고, 그 와중에 주르맹은 '배우는 기쁨'에 점차 빠져들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르맹에게서 돈을 얻어내려고만 하고... 후작부인의 애인인 허울만 좋은 백작은 후작부인을 빌미로 주르맹을 꼬드겨 돈을 빌리기도 한다.

한편 주르맹은 딸 뤼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어 신분상승을 꾀해 보는데, 이 딸에게는 이미 클레앙트

라는 평민 출신의 애인이 있다. 평민 신분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주르맹은 노심초사하고, 클레앙트의 하인인 코비엘은 계락을 꾸며 클레앙트를 터키 왕자로 꾸며서 주르맹의 집에 들어서게 한다.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주르맹은 이 결혼식을 그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예술적 성취들을 후작부인에게 보여 주는 성대한 연회로 변신시킨다. 남들은 주르맹이 깜빡속은 사실에 즐거워하지만, 주르맹은 자신의 꿈과 환상이 만든 바로 그 세계에 도달한 듯 환희에 찬 얼굴로 연회의 의식을 시작한다.

* 본 공연에 소개되는 한국무용은 국립무용단 고정레퍼토리 작품 중에서 모티브를 얻어 안무자 프레데릭 통바르 님과 조안무자 윤성철 님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한 작품임을 알려드립니다.

LE BOURGEOIS GENTILHOMME, c'est l'histoire d'un homme jeune encore, marié, riche, et qui par amour pour une autre femme que la sienne va découvrir un monde qu'il ne connaissait pas, celui de l'art, de la musique, de la danse, de la poésie, du langage, du costume, du maniement des armes et de la philosophie pour rire.

Monsieur Jourdain est un homme sans culture qui a les moyens par amour de construire un monde dans lequel il s'absorbe.

La cérémonie turque est la tornade illusoire qui l'emportera. «Et ma femme je la donne à qui la voudra» sera sa dernière réplique.

몰리에르 [1622.1.15~1673.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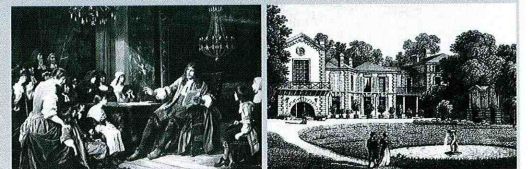
프랑스의 극작가 겸 배우. 본명 장 밥티스트 포클랭(Jean Baptiste Poquelin).

몰리에르는 사회 비판적인 희곡을 주로 쓴 작가로, 당시의 위선적인 생활상, 귀족들의 퇴폐상, 경박한 사교생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희곡으로 유명하다. 제수이트 교단의 클레몽 학교를 거쳐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졸업 무렵부터 연극에 빠져 평생을 연극인으로 살았다. 자신의 마지막 작품 <기분으로 읽는 사나이>의 제4회 공연에서 주인공 아르갱 역을 맡아 열연하다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고, 연극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라신느와 함께 프랑스 고전을 대표하는 작가인 몰리에르는 탐욕, 위선, 소심, 허풍 등 인간 내면의 허를 찌르며 관객을 웃음으로 성격희극들로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들 못지않게 삶에 대한 깊고 풍성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의 작품들은 등장인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당대의 풍속만이 아니라 그 미묘한 심리까지 깊게 파고들으므로, 단순한 풍속극을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한 탁월한 모럴리스트의 지적 해부에 이른다.

그는 <타르튀프>를 통해서 가톨릭 성직자들의 거짓 신앙과 부패를 비교했고, <동 쥐앙>에서는 귀족들의 퇴폐상을 그렸으며, <사람 혐오자>를 통해서 상류사회의 경박한 사교생활을 빈정거렸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대표작으로 <수전노>, <타르튀프>, <돈 쥐앙> 등이 있다.



> 몰리에르와 극단단원 >> 몰리에르의 생가



"Belle marquise, beaux yeux me font mourir d'amour"
"아름다운 후작부인, 그대 아름다운 두 눈에 사랑으로 죽을 것만 같소."





주르맹 | 이상직 (Lee, Sang-Jik)
M. JOURDAIN

현재 국립극단 운영위원. 2000년 프랑스 연출가 다니엘 메스기쉬 연출의 <브리타니쿠스>(라신느 작)에서 광기에 들린 '네로' 역을 맡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작품으로 그해 허서연극상의 '주목받는 연극인상'을, 다음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연기자상을 받았다. 2003년에는 국립극단 제200회 정기공연 기념작인 <문재적 인간 연산>에서 연산 역을 맡아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청주시대 독어교육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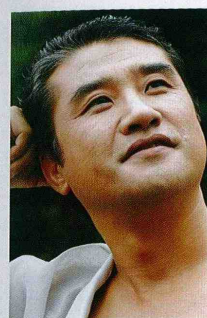
마담주르맹 | 조은경 (Cho, Eun-Kyung)
Mme. JOURDAIN

1986년부터 극단 광장에서 활동한 후 1989년 준단원을 거쳐 1991년부터 국립극단 정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대무용에도 뛰어나 <아기씨와 건달들>, <카바레> 등 뮤지컬에도 출연했다. 국립극단에 들어오자마자 <물보라>의 주인공을 떠났으며,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의 아델라 역과 <브리타니쿠스>의 왕비 아그리피나 역 등 주로 개성이 강한 역으로 열연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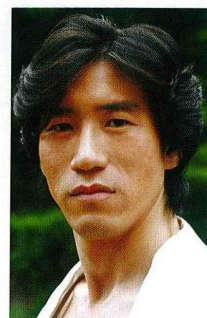
뤼실 | 이은희 (Lee, Eun-Hee)
LUCILLE

청주 지역 극단에서 활동하다 2002년 국립극단 입단. <프레스토-마르고 님도록>(2002)을 시작으로 <집>(2003), <타이투스 앤드러니쿠스>(2003), <인생차림>(2004) 등에서 돋보이는 연기를 했다.
서울예술대 졸업.



코비엘 | 이영호 (Lee, Yong-Ho)
COVIELLE / UN MAITRE DE PHILOSOPHIE

국립극단 운영위원. 청소년 및 직장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극 교육에 특히 힘을 쓰고 있다. 코비엘과 철학선생 역을 함께 맡았다. <맹진사댁 경사> 삼들이 역, <마르고 님도록>의 역대 대통령 역, <올리버스 시저>의 시저 역, <뇌우>의 노대해 역 등.
서울예술대 및 한국방송대 졸업.



감술선생-무프티 | 서상원 (Seo, Sang-Won)
UN MAITRE D' ARMES

극단 마추를 거쳐 2001년 국립극단 입단. <마르고 님도록>의 돈 카를로스, <집>의 매형, <뇌우>의 주평 등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관동대 졸업.



니콜 | 계미경 (Kye, Mi-Kyung)
NICOLE

방송사 아나운서를 거쳐 98년 국립극단 입단. <브리타니쿠스>의 주니아, <행빛>의 오필리아, <문재적 인간 연산>에서 녹수 등 개성 있는 주역을 많이 맡았다.
청주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클레옹트 | 한윤춘 (Han, Youn-Choon)
CLEONTE / UN MAITRE A DANCER

2001년 국립극단에 입단했다. 한국춤에도 조예가 깊어 이번 공연에서는 클레옹트와 무용선생 역을 함께 맡았다. <타이투스 앤드러니쿠스>(2003), <뇌우>(2004, 주총 역) 등에서 열연했다.
청주대 연극영화과 졸업.



도리멘느 | 광명화 (Kwak, Myung-Hwa)
DORIMENE

1996년 국립극단의 <춘향이 춘향아>에서 '춘향' 역으로 객원 출연한 이후 1997년 정단원으로 입단했다. <태>의 세자, <맹진사댁 경사>의 이쁜이 역을 비롯해 <문재적 인간 연산>(2003), <바나 아저씨>(2004, 소나 역)에서 열연했다. 중앙대 국악과 졸업.



도랑트 | 김종구 (Kim, Jong-Gu)
DORIMENE / UN MAITRE DE MUSIQUE

실협극단을 거쳐 1982년 국립극단에 입단했다. <마르고 님도록>, <맹진사댁 경사>, <심야>, <감찰관>, <오 이디쿠스 왕> 등이 대표 출연작. 이번 공연에서는 음악선생과 백작 도랑트 역을 같이 맡았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졸업, 현 중앙대 대학원 연극학과 박사과정.



재단사 | 노석채 (Roh, Seok-Choe)
UN MAITRE TAILLEUR

1998년 국립극단 입단. <브리타니쿠스>에서 브리타니쿠스 역을 비롯해 <마르고 님도록>, <행림> 등 다양한 출연했다. 단국대 연극영화과 졸업.



양재검습공-하인 | 이원재 (Lee, Won-Jae)
UN GARON TAILLEUR

2004년 국립극단에 입단. 2004년 작 <인생차림> 등 꾸준히 출연하고 있다.
상명대 대학원 재학중.



악사들 | 국립국악관현악단 The National Orchestra Company of Korea



지휘타악 박천지(Park, Choun-Ji)
CONDUCTOR & PERCUSSION
중앙대 음대 한국음악과 졸업, 동대학원 지휘 전공 수료, 이당곡 <봄이 김산달>지휘, 중앙대 국악대학 건립 기념 연주회 지휘



아쟁 여미순(Yeou, Mi-Sun)
AJENG
현 국립국악관현악단 운영위원.
추계예술대 졸업, 중앙대 대학원 한국음악과 졸업



해금김영미(Kim, Young-Mil)
HEAGUM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중앙대 음대 한국음악과 졸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관현악단 협연, 개량해금연구회 대표



가야금 임현(Lim, Hyun)
GAYAGUM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중앙대 음대 한국음악과 졸업,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졸업



소금김종욱(Kim, Jong-Uk)
SOGUM
단국대 예대 국악과 졸업, 용인대 음악대학 원 국악과 졸업, 무형문화재 제1호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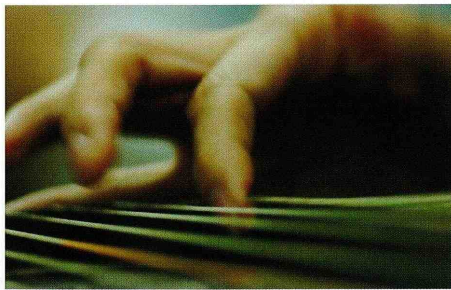
신디사이저 송희선(Song, He-Sun)
SYNTHESIZER
중앙대 음대 한국음악과 졸업, 동 대학원 한국음악과 졸업



피리 이석주(Lee, Suk-Joo)
PIRI
추계예술대 졸업, 용인대 예술대학원 졸업, 인간문화재 56호 진도 셋김군 이수자



대금 권의성(Kwon, Eui-Eui-Sung)
DESGUM
단국대 국악과 졸업



대피리 이상준(Lee, Sang-Jun)
BASE PIRI
한양대 국악과 졸업, 중앙대 한국음악과 수료, 동아콩쿠르 일반부 대상, 대전 연진 국악원 협연



무용수들 | 국립무용단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윤성철(Yun, Sung-Cheol)
국립무용단 운영위원, 한성대 무용과 졸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졸업, 안무 <누구에게도 우울한 날은 있다>, 출연 <강강술래>, <신라의 빛>, <춤-춘향>, <바다>



정길만(Jung, Gil-Man)
한성대 무용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 안무 <포고 기자 - The First Movement>, (1969.1.7), 연극 <천탈>, 출연 <신라의 빛>, <춤-춘향>, <바다>, <비어있는 들>



박성국(Park, Sung-Guk)
계명대 무용과 졸업.
안무 <꼬리>, <두리 두리>, 출연 <신라의 빛>, <춤-춘향>, <바다>, <비어있는 들>



박영애(Park, Young-Ae)
경성대 무용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졸업.
안무 <환>, <서울의 착한 여자>, <한여름 밤의 꿈>, <나목에게>, 출연 <신라의 빛>, <비어있는 들>, <바다>



정소영(Jeong, So-Young)
세종대 무용과 졸업.
출연 <신라의 빛>, <춤-춘향>, <바다>, <주목 - 태허>

가수들 | 국립오페라단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소프라노 고혜영(Ko, Hye-young)
SOP.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독일 Duesseldorf Robert Schumann 국립음대 졸업. <1월의 음악이야기>, <가을산책>, <꽃과 사랑의 노래> 출연, 현 이화여대, 경원대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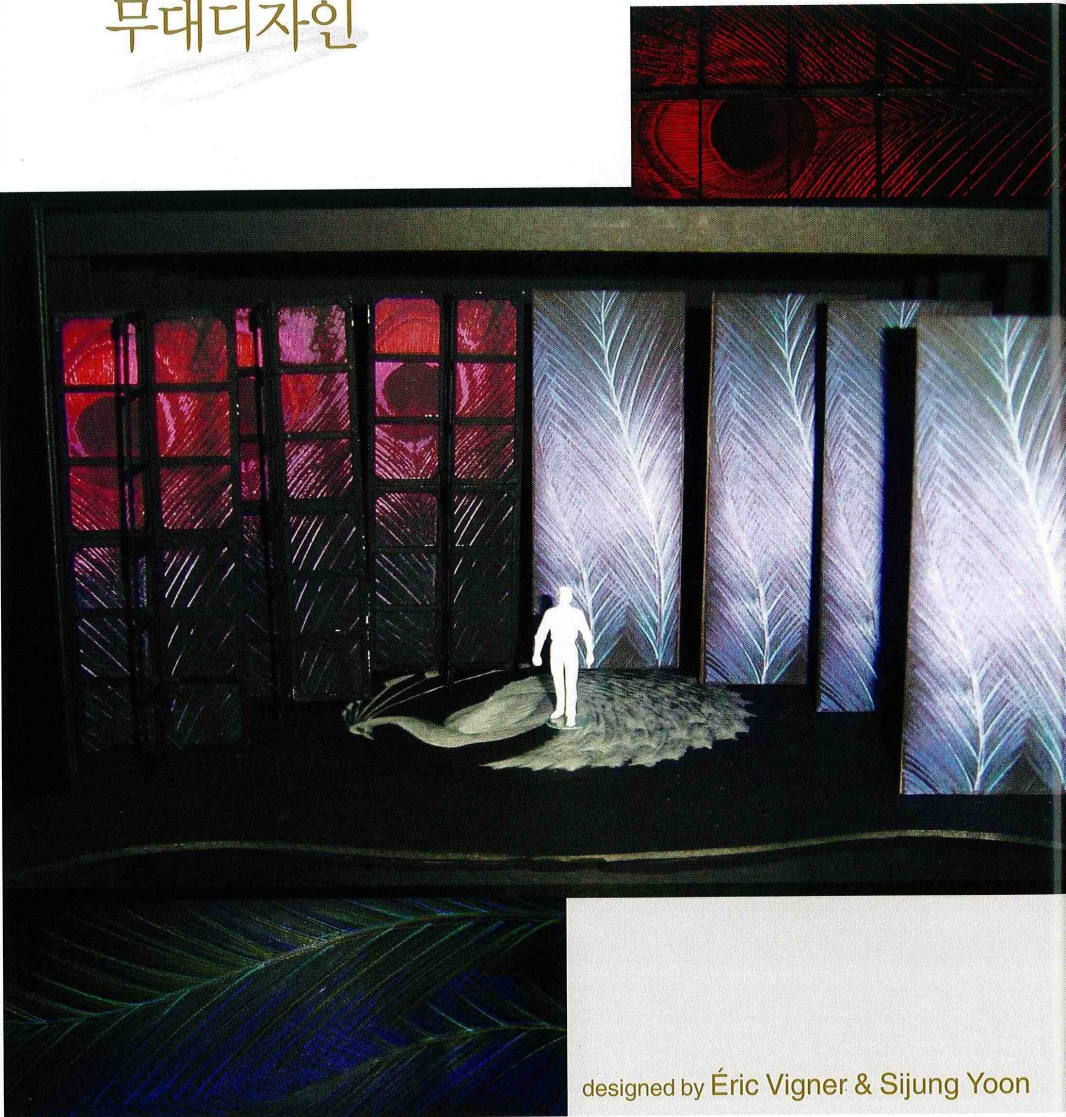


테너 김준홍(Kim, Jun-Hong)
TEN.
한양대학교 졸업, 이태리 Genova 국립음악원 수료, Voghera 시립 아카데미 졸업, 로렌초 베로지 국립음악원 졸업,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등 출연, 현 카톨릭대, 호서대 출강



바리톤 한상식(Han, Sang-Sik)
BAR.
세종대학교 졸업, 이태리 Niccolò Pizzinni 국립음악원 졸업, 볼로냐 필 하모닉 아카데미 졸업, 로마 국제음악 아카데미 졸업, 오페라 <리굴레토>, <투린 도트>, <전쟁과 평화>, <리보엘> 등 주역 출연, 현 여주대, 안동대 등 출강

무대디자인



designed by **Éric Vigner & Sijung Yoon**

의상디자인



주르댕

주르댕부인

designed by **Eunjoo Song**

왼쪽부터 코비엘 | 레옹트 | 도리멘스 | 니콜 | 도랑트 | 휘실 | 철학선생

에릭 비니에

프랑스 연극계에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은 젊고 실험적인 연출가 풍부한 교육 및 현장경험으로 최연소로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



생전의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함께한 에릭 비니에

《귀족놀이》의 연출을 맡은 에릭 비니에(Eric Vigner · 44) 씨는 현재 프랑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이자 부설 로리앙 극장의 극장장이다.

1960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의 수도인 렌스에서 태어나, 리옹 국립연극예술·기술학교(ENSAATT)에서 연출을, 렌스 콩세르바투아르와 파리 국립연극원(콩세르바투아르, CNSAD)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연출자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연기와 연출, 무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 학력뿐 아니라 실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젊은 배우들과 함께 연구 교육과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지적이고 실험적인 연극인인 비니에 씨는 극예술아카데미에 참가하면서 아나톨리 바실리예프, 오이다 요시, 루카 룬코니 등과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피터 브룩의 초청으로 연극 연출에 관한 연구 이틀리에(일종의 워크숍) 활동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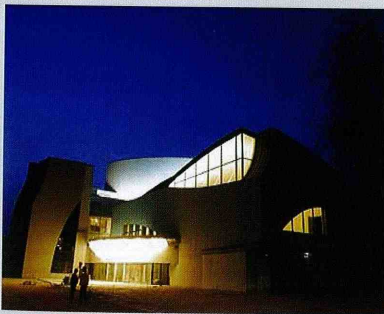
1995년 로리앙 소재 '브르타뉴 연극센터' 소장에 35세 나이로 임명되었는데, 프랑스에서 '국립연극센터'의 소장은 장관 명으로 임명받게 되어 있다.

비니에 씨는 무엇보다 누보 로망의 대표적인 소설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와의 인연과 우정으로 유명하다. 1992년 뒤라스의 《여름비》를 올려 뒤라스가 찾아오면서 인연을 맺었고, 뒤라스 사망 후 2002년 뒤라스의 《사바나 만(灣)》을 프랑스 최고의 여배우 '카트린느 씨미'와 '카트린느 이젤'의 출연으로 '코메디 프랑세즈'에 올려 코메디 프랑세즈 레퍼토리에 뒤라스의 이름을 최초로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사바나 만》은 2005년 서울공연예술제에 초청받았다).

몰리에르의 작품으로는 1999년에 코메디 프랑세즈에 《아내들의 학교》를 두 번째로 올린 바 있고, 《귀족놀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와 로리앙 극장



Eric Vigner

- 1988년 첫작품으로, 《쿠아얌 광장》(코르네유 작) 파리 국립연극학교 배우로도 활동 영화/ 필립 드 브로카, 브누아 자코, 마리아 드 메데이로스 등의 감독과 작업. 연극그룹 '슈잔느 M (Suzanna M)' 결성
- 1991년 《베로 만든 집》(롤랑 뒤비야르 작) * 파리 교외 아시레몰리노의 한 공연장에서 초연한 이후 파리가을축제의 일환으로 라르슈 드 라 데팡스(l'Arche de la Défense - 신 개신문)에서 재공연 됨
- 1992년 《삼브레피즈 연대》(브레스트 지방 페르츠), 《여름비》(마르그리트 뒤라스 원작, 파리 국립연극원)
- 1993년 《오베리우의 밤 - 엘리자베타 밤》(다나일 허름스 원작) * 193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발표작
- 1994년 《청년》(장 오뒤로 원작, 오베르빌리에 코윤 극장) 《아름다워》(나탈리 사르트 원작, 파리 국립연극원), 《(너에게) 다시 돌아와》(그레고리 마튼 원작, 오데옹 유럽 극장)
- 1995년 《비자제》(라신느 원작, 비유콜롬비에 극장) * 코메디 프랑세즈와 협력 작업
- 1996년 《우스운 환상》(피에르 코르네유 원작, 브르타뉴연극센터) 《브랑쿠시 대(對) 미국》 * 아비뇽 연극제에서 상연된 이후 파리의 쥘피두 센터에서 재공연, 1996년
- 1997년 《곡에서》(장 주네 원작, 램버트 월스 출연)
- 1998년 《너는 안돌, 나는 정원》(자크 르보티에 원작, 브르타뉴연극센터 시즌 개막작)
- 1999년 《마리온 들로르》(빅토르 위고 원작)
- 1999년 《아내들의 학교》(몰리에르 원작, 코메디 프랑세즈)
- 2000년 《코펠스》(이오네스코 원작, 브르타뉴연극센터) 《La Didone》(카탈리, 스위스 로잔 오페라하우스) * 첫 오페라 연출작
- 2002년 《사바나 만(灣)》(마르그리트 뒤라스 원작, 코메디 프랑세즈)
- 2003년 오페라 《Empio punito》(멜라니 곡, 라이프치히 오페라하우스)
- 2004년 오페라 《안티고네》(몰렐리에 오페라 하우스, 파리 샤퉴레 극장)

《귀족놀이》 공연은 한국 공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한국 공연 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Lorient) 극장' (1,100석) 무대에 다시 올려져 프랑스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브르타뉴 지역은 프랑스에서도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할 만큼 독립성이 강한 프랑스 북서부 지역, 로리앙의 해안가에 자리 잡은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는 2개의 부설 극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에릭 비니에 씨가 소장 겸 극장장을 맡고 있다.

프랑스의 국립연극센터는 국립극장(코메디 프랑세즈를 포함한 5개) 이외에 주요 지역에 위치한 연극센터로, 도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연극 교육 및 공연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연극센터 소장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며, 에릭 비니에 씨는 지난 1995년에 35세 나이로 임명되어 세인의 관심을 받았고, 9년 동안 놀랄 만한 성장으로 관심을 받아 지난해엔 '국립'이란 이름이 확고하게 붙었을 뿐 아니라 대극장(1,100석)까지 건립되어 명실상부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극명소를 자리잡아가고 있다.

Dramaturgy · Translation



번역 · 드라마투르그 | **최준호**
(Choe, Jun-Ho)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 국립극장 운영자
문위원, 예술의 전당 공연예술감독.
오페라 <김구>, 연극 <하녀들>, <브리타니쿠스>(국립극단), <제방의 복소리>(태양극단)
등 다수 연출 및 드라마투르그

Assistant director · Tran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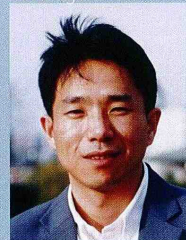
번역 및 조연출 · 통역 | **한덕화**
(Han, Duck-Wha)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한국의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불과를 거쳐 파리 통번역학
교(ESIT)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통번역사로 활
동 중이다. 국립극장에서는 2001년 태양 극단
(제방의 복소리) 공연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Arrangement



편곡 | **박위철**(Park, Wi-Cheol)
현 연변대 예술학원 음악학부 진임장사,
부산대 대학원 한국음악과 박사과정 중
연변 공중예술과 음악부 부주임
25현금 독주곡<깊가의 민들레>, 25현
가야금을 위한 <영천 아리랑과 응애>,
개량대금과 25현금을 위한 협주곡 <벚
레> 등 작곡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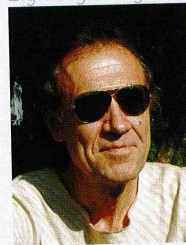
편곡 | **조원행**(Cho, Won-Hang)
중앙대 한국음악과 졸업
미국 뉴욕 시립대학원 작곡과 졸업
동아콩쿠르 및 I.S.A.M 작곡상 수상
(미국음악학회)
중앙대, 천안대 출강
뮤지컬 <리틀 라이언> 음악감독 및 작곡
뮤지컬 <젊은 청년 장준하> 편곡

Assistant director · Choreography



조연출 및 안무 | **프레데릭 롬바르**(Frédérique LOMBART)
파리 국립 오페라단에서 고정적으로 발레와 오페라 작품들의 조연출을 담당하고 있다. 파리 오페라단의 <라 체네렌톨라 La Cenerentola>, 몽펠리에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프랑클린 르 나우르(Franklin Le Naour)의 <7월 14일 14 juillet>, 토리노 레지오 극장의 <카르멘 2 Carmen 2> 작업 참여. 존 콕스(John Cox), 로버트 카센(Robert Carsen), 리처드 포먼(Richard Foreman), 토비아스 리히터(Tobias Richter), 에밀리오 사지(Emilio Sagi), 프란체스카 라투아다(Francesca Lattuada), 닉 브로드허스트(Nick Broadhurst) 등의 연출가들과 작업했다. 2004년에는 프랑스 오랑주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에 이어 8·9월 도쿄, 서울에서 각각 공연되는 오페라 <카르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Lighting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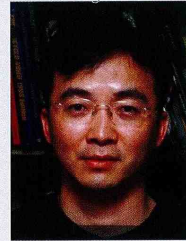
조명디자인 | **조엘 우르베**(Joël HOURBEIGT)
조엘 우르베는 다수의 연극, 무용, 오페라 등의 공연에서 조명을 담당했다. 유럽 지역에서 300편 이상의 작품의 조명 디자인을 담당했으며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인도 등지에도 초청된 바 있다.
그는 또한 '코메디 프랑세즈'와 '오페라 드 파리' 에도 초청되었으며 철즈부르크, 아비뇽, 엑상프로방스 등지에서 다양한 대규모 문화 행사에 초청되어 작업한 바 있다.
에릭 비니에와의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지난 3월부터 올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2005년에는 플린느 국립극장, 마르세유 국립 극장, 제네바 오페라 등과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Assistant Choreography



조안무 | **윤성철**(Cho, Won-Hang)
국립무용단 운영위원, 한성대 무용과
출연,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졸업.
무용 <누구에게도 우울한 날은 있다>
안무 <신라의 빛>, <강강술래> 등
다수 출연

Set design



무대디자인 | **윤시중**(Yoon, Si-jung)
뉴욕서 브로드웨이 아시아 기술감독과
'78th Theater Lab' 상임 디자이너로서, 40편
이상의 연극, 오페라를 디자인하였다.
뉴욕 드라마 리그 베스트 프리덕션 후보자.
<드라큘라>, <리틀 드레곤>, <정감더리>,
SBS 어린이 뮤지컬 <신밧드>, <고려의 아침>
(시연회) 등 다수

Photograph · Documentary film



사진 및 기록 | **오틀로 빌가르**
(Othello VILGARD)
프리랜서 시네아스트. 프랑스 및 해외에서
다수의 실험 영화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실험 영화 활동, 교육 및 매급 기관인 에트
나(ETNA)에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
다. 현재 낭테르 소재 파리 10대학에서 실
험 영화 수업을 강의하고 있다.

Photograph



사진 | **바냐 르루아**(Vania LEROY)
(마리 클레르 이테)지의 테코레이션 스타일리
스트. 전문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현대 문화를
전공했으며 예술 분야, 특히 연극과 사진에 대
한 관심으로 본 공연의 사진 작업에 참여했다.

Costume design



의상디자인 | **송은주**(Song, Eun-Joo)
파리 3대학 공연예술과 연극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 | <하녀들>(극단 거라페), <레퀴엠>(극단 무천), <장화와 홍련>(극단 롤리/ 무대 및 의상 디자인), <에쿠우스>(극단 실험), <브리타니쿠스>(국립극단), <집>(국립극단/ 무대 및 의상) 등
프랑스 | 태양극단 <변방의 북들> 의상 제작 <엘렌 식수스 작, 이리안 르뉴슈킨 연출> 부풍 극장 <브리타니쿠스> 의상 디자인, 라 베르제르 극장 <귀족수업> 의상 제작, 오페레타 <바다결랑> 의상/무대 디자인/제작 등 국내외 40여 편

Assistant director · Interpretation



조연출 및 통역 | **정 미**(Jung, Mi)
서울 예술대 극작과 졸업
프랑스 리옹 2대학 졸업, 석사 재학 중

Property design



소품디자인 | **박은혜**(Park, Eun-Hye)
웅인대 대학원 무대미술 석사과정 중
<외우>(국립극단), <12동굴 이야기>(라트 어린
이극장) 소품디자인, <출애가기>(극단 미추), <
긴 크리스마스의 정찬>(극동 레퍼토리) 무대 디
자인

2004 국립극단 창작극 개발을 위한 연구·실험 공연

새 작가, 새 연출, 새로운 창작극 무대

2004년 제6회 신작희곡 페스티벌 중 주목을 받았던 작품인 <질마재 신화>(조현진 작)와
2004년 제14회 국립극장 창작공모 선정작인 <푸르른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유진필 작) 등
신작 두 편이, 열정적이고 신선한 두 명의 새로운 연출자를 만나
11월, 새로운 창작극 무대로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일시: **2004. 11.4(Thu)~14(Sun)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1부: 질마재 신화 (조현진 작 / 이은준 연출)

2부: 푸르른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유진필 작/김진만 연출)

1) 기획 의도

<신화>, <연설> 등 국립극단 창작공모 당선작의 성공적인 공연 선례의 계보를 잇는 창작극의 산실 무대!
7월 <신작희곡 페스티벌 무대> 대상작 중 우수작과 국립극장 창작공모 당선작 두 편을 신작작가와 신예연출기와의 공동작업을 구현하여 명실공히 새 작가와 새 연출가, 새로운 창작 무대로 이어지게 하는 신작 무대. 2004년 국립극단의 고전 레퍼토리와 해외신작, 해외명작, 국내 신작 등으로 이어지는 '정체성 확립과 개방'의 중간 길선으로서 국립극단의 미래와 한국 연극의 활로를 보여 줄 공연 무대가 될 것이다.

2) 연출 선정

8월 중 공연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연출자를 공모하여 본인이 제출한 연출계획서를 토대로 이윤택 연출감독과의 인터뷰를 거쳐 연출자로 확정. 국립극단 50여 년 역사의 사상 최초로 국립극단 연수연출 출신 최연소 연출가 이은준(여/27세)과 국립극장 주최(2004-시선집중 연출가전)에서 주목 받은 김진만(남/35세)이 선정되어 11월 국립극단 시선을 마감하는 창작극 무대를 뜨겁게 담구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3) 젊은 평론가 그룹과 함께 하는 <국립극단 창작극 심포지엄>

주제: 신화와 연극
일시: 2004년 11월 13일 (토) 오후 7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국립극단이 11월 <2004 국립극단 창작극 개발을 위한 연구·실험 공연>이라는 주제로 의욕적으로 마련하는 두 편의 창작극을 대상으로 젊은 평론가 여러분의 공연평과 함께 '신화와 연극'이라는 주제로 공연과 비평을 동시에 수행하는 창작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1부는 '신화와 연극'이라는 원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평론가 여러분과 공연 관계자, 연극 애호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창작극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2부는 젊은 평론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연되는 두 편의 작품을 관람한 후 13일 열리게 되는 심포지엄 이전에 발제문 혹은 공연평을 제출,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하게 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1편의 평론(원고지 60매 이상)에는 소정의 사례(일백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2004년, 국립극단의 화두가 되었던 '정체성 확립과 개방'이라는 주제(『외우』, 『인생차입』)의 국립극단 고전 레퍼토리 복원 공연과, 작가·연출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3세계 해외 신작 <행일>, 체호프 100주기 기념공연 해외명작 <바나나저씨>, 국립극단 기획공연 '세계명작무대'의 <귀족놀이>, 그리고 초거울, <질마재 신화>와 <푸르른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두 편의 창작극 활성화를 위한 연구·실험공연 무대로 명실상부하게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도에 더욱 활발히 추진될 일련의 의욕적인 국립극단 공연에 출연할 연기자 20여 명을 공개오디션 통하여 선발할 계획과 연계하여 일반 연극계와 함께 이루어낼 활발한 인적자원의 교류와 개방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극단

The National Drama Company of KOREA



예술감독 이윤택
원로단원 장민호, 백성희
운영위원 이혜경, 이영호, 이상직
기획위원 권혜미

총무 정세원

단원 이승욱, 오영수, 김재진, 문영수, 최상철, 이문수, 우상진, 서희승, 김종구, 권복순, 최운경, 조은경, 서상원, 김진서, 남유선, 노석채, 한윤춘, 게이경, 광명화, 이은희, 이원재

명예단원 신구, 오지명, 최불암, 박근형, 박정자, 전무송, 이호재, 손숙, 최종원, 유인촌
자문회의회 위원 임영웅, 구허서, 권선식, 서연호, 김문환, 김윤철, 김방욱



국립극단의 수준 높은 연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립극단의 연극사랑회원이 되시면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연극사랑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 원하는 회원 종류를 선택하신 후, 소정의 회비를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전화나 팩스로 가입신청서 기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회원만의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카드를 발급, 우송(등기)해 드립니다.
-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며, 국립극단의 연간 정기공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 공연시 회원 본인의 1회 사용에 한함)
- 회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분	회비	회원 혜택	유효기간
일반회원	30,000원	국립극단 정기공연시 무료관람(비금식-A석 제공) 국립극장 월간지 '미르,우송'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
동반회원	50,000원	국립극단 정기공연시 동반 1인과 함께 무료관람(비금식-A석 2매 제공) 국립극장 월간지 '미르,우송'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
특별회원	80,000원	국립극단 정기공연시 동반 1인과 함께 무료관람(음용식-S석 2매 제공) 국립극장 월간지 '미르,우송'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

- **예금주:** (사)국립중앙극장 예술진흥회
- **은행계좌번호:** 제일은행 101-10-032665
- **문의:** 02-2271-1741 (국립극단 기획행정실)
팩스 02-2265-6463 / www.ntok.go.kr

2005년 상반기 국립극단 공연 오디션 공모

국립극단에서는 '연극계 문화 개방'이라는 대의 아래 2005년 공연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공연 계획 예정(아래 도표 참조)인 작품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하고자 합니다.

공개 오디션 방안

- **응모자격:** 각 작품 공히 '우리 말, 소리, 몸짓 표현 능력자'
- **응모요령:** 1)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각 공연 대본을 다운로드하여, 작품 해석과 표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리, 인터뷰에 응함
2) 상기 세 작품 중 적어도 2개 작품의 남녀별 대사를 준비하여 3분 이상 화술과 호흡, 대사 표현력을 보여줄 것
3) 본인의 특기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3분 이상 보여줄 것
- **선발규모:** 3개 작품 종합 남녀 약 20여 명 내외
- **대우조건:** 선발자 경력 감안하여 국립극장 사례규정에 준한 소정의 출연사례 지급

	공연명	공연기간	장소	비고
제203회 정기공연	- 세계명작무대 - 군도 (메도독) (살러작 / 이윤택 연출)	4.29~5.8 (10월10회)	해오름극장	독일문화원 공동주최
제204회 정기공연	산 불 (차범석 작/임영호 연출)	5.26~6.4 (10월11회)	달오름극장	국립극단레퍼토리 복원사업
제205회 정기공연	물 보라 (오태석 작 / 연출)	6.9~19 (10월10회)	달오름극장	국립극단레퍼토리 복원사업

- **응모기간:** 세부일정 10월 중순 경 국립극장 홈페이지 및 우리연극대 홈페이지 공지
- **오디션 일정:** 2004년 12월 중순 경
- **문 의:** 국립극단 기획행정실 02-2271-1741 (담당: 정세원)
☎ (군도), (산불), (물보라) 대본은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취지 및 소개

설립취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생활의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지원단체 또한 재정난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KLS에서는 지원금액을 전액 출자하여 재단법인 로또공익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단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연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존 재단들의 실적 위주의 후원사업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탄생한 본 재단은,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복지사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소개

재단법인 로또공익재단은 비영리 순수공익재단으로, 기업가치의 사회환원과 국민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 KBS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주방송회장으로 재직 중인 홍두표 이사장을 중심으로, 남진우 KLS 부회장, 이경호 전 보건복지부 차관, 신영무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허영호 변호사 등의 이사장과 2명의 감사 및 실무담당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로또공익재단은 로또 행복공동체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재장난 및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및 물품지원 등을 계속해 왔으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공익사업, 그리고 다각적인 정책모형의 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복지정책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04년 사업계획

꿈-이동지원

1. 화귀, 난치병 지원사업 및 소아암 어린이 지원회귀, 난치병 및 백혈병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 지원 및 한아 가정의 경제지원 지원
2. 로또어린이집 건립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건립 지원

희망-장애인 지원

1. 장애인 사이버 교육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통신기기 지원
2. 대학 내 장애인 특수교육장비 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장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확대에 기여

사랑-어르신 지원

1. 치매노인요양시설 건립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을 위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의 노인 그룹홈 건립 지원. 모범적인 치매노인 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을 목표로 국내외의 기존 시설과 차별되는 선진적인 노인복지문화 확립 예정
2. 사랑의 팔찌 보급사업
배회증상을 가진 치매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팔찌 보급 지원

행복-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1. 차량지원사업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행복승합차 지원

2. 불우계층 지원사업

-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3. 기타지원사업
재단·재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긴급지원

We Start 운동 건강지킴이 만들기

로또공익재단은 위스타트(We Start)사업본부와 함께 전국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만들기'를 실시합니다. '건강지킴이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8월 23일부터 주중 10일 동안 1차 지역으로 선정된 전주의 300여명 어린이들이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로또공익재단은 전주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전국 6대 특,광역시와 8개도 2,000여명의 아동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선포

지난 4월25일, 삼양월드컬렉션장에서 개최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선포를 위한 서명운동, 출범식 을 시작으로 한달여 동안 강변, 명동, 대학로, 반포에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10여만명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월 23일, 1000여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선포는 앞으로 희귀난치

성질환자들의 의료복지분야에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남아섬 유니세프를 개관

로또공익재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손을 잡고 어린이를 위한 다큐멘터리 문화공간 '유니세프홀'을 남아섬에 개관하였습니다. 나라를 테마로 개관한 유니세프홀은 국내 저명한 설치작가들의 작품들로 꾸며졌으며, 이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상상의 나라를 한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아껴쓰고, 나눠쓰는 경제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내리물림장터를 개설, 어린이들끼리 서로 재활용하는 장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리물림장터는 남아섬에서 시작,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열린 예정입니다.

국립극장과 함께하는

공연문화나누기 캠페인
앞서 펼친 (여우), (인생차임), (바나나) 공연문화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사회복지자를 위한 사회 각지에서 어르신은 사회복지사 2000여명 과 장애우,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초청한 공연을 무료관람 하였습니다. 자칫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만족을 향상하고, 이는 또다른 문화복지의 장을 제시할 것입니다.

차량지원사업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행복승합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3년 사업내용

차량 100대 지원사업

지난 11월 2일,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 100여 곳에 꿈(어린이), 희망(장애인), 사랑(어르신)의 차량건달식이 있었습니다. 12인승 승합차, 리프트(휠체어, 의식) 장착 차량, 이동식 목욕차량 등 총 100대가 이날 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개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로또공익재단이 지원한 차량은 전국 각지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행복의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4차에 걸친 나눔의 바자회

10월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명동에서 총 4차에 걸친 나눔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수혜지역 알로원 돌기, 불우영향인 돌기, SBS 스타 도내이선과 함께 한 구루빙 어린이 돌기, 한국 생명나눔운동본부의 골수기증 캠페인 및 백혈병 어린이 돌기를 위해 거행된 이번 바자회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원비 및 수술비가 모금되었습니다.

지상최대 베품시장

11월 8일부터 양일간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로또공익재단과 서울시, 아름다운 재단이 공동으로 지상최대 베품시장을 주회하였습니다. 나눔과 재활용이라는 취지 하에 10만 시민들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직 사용 가치가 있는 200만 물품들을 재활용 함으로서 환경을 생각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변의 불우이웃도 돕는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전국순회 자원연극 사업

극단 (배우세상)의 대표 연극배우 김갑수씨가 총감독을 맡아 전국순회공연이 열립니다. 연극, 통역어전은 전국 의 문화적 소외층에게 연극을 통해 삶의 자신감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자 기획되었으며, 11월 24일 인천공연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전국 10곳에서 총 20회의 공연이 열립니다. 이 외에도 로또공익재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행복공동체 만들기 캠페인』

『행복공동체 만들기』 캠페인은 로또의 시스템사업자인 (주)KLS가 수익금의 사회 환원과 로또의 공익성 제고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로또공익재단 출범과 함께 전개한 전국적 기부추진사업입니다. 2003년 9월 제주도에서 펼쳐진 행복공동체 출범식을 시작으로 나눔 바자회와 사회 전국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승합차량 100대 전달식 등이 이어졌으며, 로또복권 구입고객 및 행사 참가자에게 본인인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1천원 상당의 기부상품권이 배포되었습니다. 상품권 소지자는 어린이(꿈), 장애인(희망), 어르신(사랑) 등 기부를 원하는 수혜처에 기부상품권을 투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고, (주)KLS는 기부상품권 금액만큼의 기부금을 로또공익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전국적으로 350만명이 참여하여 총 35억원의 기부금을 적립했으며, (주)KLS에서는 이 금액을 전액 로또공익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의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상품이 아닌 브랜드를 파시는 클라이언트이라면

도티몽 커뮤니케이션즈에 문의하십시오.

귀사 브랜드의 향기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